

תַּעֲרִיב, λέπρα, λεπρός의 올바른 이해와 번역

유윤종*

1. 시작하는 말

종교개혁 이후 성경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구약성경의 레위기 13-14장에 묘사된 부정한 피부병은 오늘날의 ‘한센병’으로 해석되고 번역되어 왔다. 필자는 2010년 11월 24-27일 서울의 코엑스에서 열렸던 ‘세계 한센포럼(2010 World Forum on Hansen’s Disease)’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성과에 근거해, 성경에는 ‘나병’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부병’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¹⁾ 그 때 일부의 한센인들이 찾아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의문을 제기했다. 자신들을 천벌 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감사의 말과 함께 그럼 왜 성경에 아직까지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며,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한센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천형으로 다루고 설교하는가라는 것이었다.²⁾ 이 글은 한센인들이 찾아와 제기했던 그 의문에 대한 답변이며,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문둥병’ 혹은 ‘나병’을 둘러싼 오해와 오역을 바로 잡고자 한다.

* Cornell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평택대학교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구약신학 교수. yoonjongyoo@hanmail.net.

- 1) Yoon-Jong Yoo, “The Role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 Informing the Term ‘Hansen’s Disease’”, in *2010 World Forum on Hansen’s Disease*, 한빛 복지협회 편 (서울: 보림 S & P; 2011), 467-480. 필자는 한국 한센 총연합회 김영호 인권국장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2) 한국에서 ‘한센병’은 ‘문둥병’ 혹은 ‘나병’으로 불리어왔다. 세 단어는 동일한 질병을 가리키지만, 사회적인 의미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정하는 ‘나병’을 둘러싼 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면서 사용했다. 첫째, ‘문둥병’이라는 용어는 저주받은 질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때 사용되었다. 둘째, ‘나병’은 중립적인 용어로 불치나 저주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치료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차별이나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원래의 사회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었을 때 사용되었다. 셋째, ‘한센병’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힘의 강화로 치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처럼 사회적 차별이나 부정적인 편견 없이 원래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사용되었다. 신정하, “한센병 관리에서 교육홍보의 중요성”, 『대한 나학회지』 39:2 (2006), 63-70. 따라서 개신교 에큐메니컬 기구인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교회에서 문둥병이나 나병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한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크리스천 투데이, 2010. 10. 8. 뉴스).

성경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성경이 우리 삶의 윤리적 및 사회적 근거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성경의 오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엉뚱한 사람이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고통 받고,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추방되기도 한다. 데이비스(Davies)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문둥병’ 혹은 ‘나병’ 혹은 ‘한센병’에 대해 대표적인 번역의 오류라고 지적한다.³⁾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램버그(Gramberg)는 한센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회적 낙인을 찍고, 격리시키는 방식은 레위기 13:45-46에 나타난 히브리어 ‘짜라아트’를 한센병으로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의학적 정보에 따르면 한센병은 격리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며 성적인 접촉이나 임신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에서는 한센병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했지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센병의 두려움을 더 확산시켰다고 주장한다.⁴⁾ 성경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공포와 차별을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개역성경에서 ‘문둥병,’ 개역개정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구약성경의 ‘짜라아트’(צָרַעַת)⁵⁾와 신약성경의 레프라(λέπρα) 혹은 레프로스(λεπρός)가 오늘날의 ‘한센병’과 동일한 질병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쟁의 결론을 내리고 올바른 한글 번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와 신약성경의 레프라 혹은 레프로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와 신약성경의 레프라 혹은 레프로스를 의학적으로 새롭게 자세하게 검증할 정도의 의학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성경학자로서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와 신약성경의 레프라 혹은 레프로스가 사용된 본문을 분석하고, 오늘날의 한센병과 일치하는지를 성경의 본문에 근거해 의학적인 견해와 비교해 오늘날의 한센병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아울러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는 오늘날의 한센병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고, 번역의 오해가 발생한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

3) Margaret L. Davies, “Biblical Leprosy: a Comedy of Errors”,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82 (1989), 622-623.

4) K. P. C. A. Gramberg, “‘Leprosy’ and the Bible”, *Bible Translator* 11 (1960), 10. 한센병 환자를 격리시켜 다루는 방식은 레위기 13-14장의 해석에 따라 근대의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었다.

5) 이 글에서 필자는 ‘짜라아트’라고 음역한다. 이 단어는 우리말 어법과 전통상 ‘차라아트’ 혹은 ‘차라앗’ 혹은 ‘짜라앗’으로 음역될 수도 있지만 필자는 히브리어 네 개의 자음 모두를 표현하기 위해 ‘짜라아트’라고 네 글자로 음역했다. 히브리어 צ의 발음에 대해 필자는 전통적으로 불리어 온 ‘차’ 대신에 현대 히브리어의 발음을 따라 ‘짜’로 음역했다. 이후부터 필자는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를 별다른 강조표시 없이 우리말 음역만 사용한다.

후, 그 단어들에 대한 적합한 한글 번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경과 한센병

2.1. 구약성경의 짜라아트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35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 29회는 레위기 13-14장에 나온다. 나머지는 신명기 24:8(울법), 열왕기하 5:3, 6, 7, 27(나아만 이야기), 역대하 26:19(웃시아 왕)에 나온다. 그 외에도 어근 צָרַע 는 ‘칼 수동 분사형’으로 5회(레 13:44, 45; 14:3; 22:4; 민 5:2), ‘푸알 분사형’으로 15회 등으로 나온다.⁶⁾ 이 단어의 어근의 의미는 매우 불확실하며,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견해가 없다.⁷⁾ 레위기 13-14장을 제외한 경우 대부분 짜라아트에 걸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걸렸음을 언급하며 그 병의 두려움을 보여 준다(민 12:10; 왕하 5:9-14, 27; 대하 26:16-21; 왕하 7:3-8). 그러나 그 병과 관련된 임상적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일부의 표현에는 ‘눈과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제사장 문서에 속하는 레위기 13-14장은 짜라아트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짜라아트를 다른 다른 본문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두려운 병으로 설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의 의미와 정확한 병명을 밝히기 위해서는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레위기 13-14장을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짜라아트의 증상과 범위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3-14장이 다루는 짜라아트의 범위는 사람의 피부 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집에서 발생하는 곰팡이까지 포함한다. 13장은 짜라아트의 증상에 따른 제사장의 확인 및 격리의 과정을 다루며 14장은 치

6) T. Seidl, “צָרַעַת”, *TDOT XII* (2003), 471.

7) 이 단어의 어근은 아랍어 *šaraʾa* “버리다, 땅으로 던지다” 혹은 *daraʾa* “수치스런, 굴욕적인”와 연결되기도 하고, 고대 남 아랍어의 *ḍrʾ* “사라지거나 살해된 자” 등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히브리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북서셈어에서는 이 단어의 어근은 나오지 않는다. 아카드어 경우 *šenītu*가 “피부병”을 의미하지만, 히브리어와의 직접적인 연결은 쉽지 않다. 소여(Sawyer)는 이 단어의 의미를 ‘왕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מְצָרַע 와 연결짓는다(출 23:28; 신 7:20; 수 24:12). 이 질병을 벌에 쏘였을 때 나오는 증상과 유사하다고 보았다. John F. Sawyer, “A Note on the Etymology of *šāraʾat*”, *VT* 26(1976), 241-245. 소여의 해석은 기발하지만 그다지 큰 지지를 받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8) Joel S. Baden, “The Origin and Interpretation of *šāraʾat* in Leviticus 13-14”, *JBL* 130 (2011), 643-662.

유된 사람의 복귀 과정과 곰팡이를 다룬다.

이 글에서는 짜라아트의 병명 확인을 위해 증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13:1-44를 먼저 분석하고자 한다. 짜라아트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다루는 이 단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곱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 a. 각종 피부병의 증상과 짜라아트와 제의(1-8)
- b. 만성적인 짜라아트(9-17)
- c. 종기가 나온 후 나타나는 짜라아트(18-23)
- d. 불에 덴 곳에 난 짜라아트(24-28)
- d. 수염이나 머리털 속의 짜라아트(29-37)
- e. 피부에 나타난 흰 색점(38-39)
- f. 대머리와 짜라아트(40-44)

2.1.1. 각종 피부병의 증상과 짜라아트와 제의(레 13:1-8)

첫째 단락에 나타난 짜라아트의 증상은 2절에 나타난 3개의 단어로 ‘스에트’(שַׁעַת), ‘사파하트’(סַפָּחַת), ‘바헤레트’(בַּהֲרֵת)이다. 첫째 증상은 ‘스에트’이다. 이 단어는 13-14장에서 약 6회 나온다(13:2, 10, 19, 28, 43; 14:56). 이 단어의 어근은 히브리어 ‘나사’(נָסַח)로 ‘들어 올리다’를 의미한다.⁹⁾ 그 어근에서 온 파생어이므로 ‘피부가 일어나는 증상’을 가리킨다.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οὐλή, ‘상처의 결과로 남은 흉터’로 번역한다.¹⁰⁾ 또한 이 단어를 “국소적인 염증, 부스럼, 사마귀” 등으로 보기도 한다.¹¹⁾ 우리말 개역개정본은 이 단어를 ‘돌거나’로, 새 번역은 ‘부스럼’으로 번역한다. 영어 번역도 유사한 의미로 ‘swelling’(NIV, RSV, NRSV, NKJV) 혹은 ‘a rising’(KJV) 혹은 ‘discoloration’(NEB)¹²⁾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 ‘흉터’나 ‘변색’ 혹은 ‘부스럼’등의 번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흉터’의 경우에는 털이 자랄 수 없다. 3절은 환부에 털이 희어진 상황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흉터라면 굳이 제사장이 문제가 있다고 진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흉터’

9) 구약성경에서 이 단어는 신분이 상승되거나 높은 지위로 올라갈 때 사용된다(창 49:3; 욥 13:11; 31:33; 합 1:7). 또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 ‘나시’는 ‘왕, 지휘자, 방백, 수령, 우두머리’ 등을 의미한다.

10) 만약 ‘흉터’라면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는 정반대가 된다. 흉터는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평평해지기 때문이다. John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The Problem of Description and Identificat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0 (1977), 156.

11) 존 하틀리, 『레위기』, 김경열 역, WBC 성경주석(서울: 솔로몬, 2005), 427.

12) 드라이버는 이 단어를 아랍어의 *siyatu*라는 단어와 관련시켜 이 단어를 ‘discoloration’이라고 주장한다. G. R. Driver,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Edinburgh: T. & T. Clark, 1963), 575.

라는 번역은 본문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변색’으로 설명하기에는 이 단어가 사용된 13-14장의 다른 구절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첫 번째 증상인 ‘스에트’는 ‘돋는’ 혹은 ‘부풀어 오른’(swelling)으로 번역하는 전통적인 견해가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둘째 증상은 히브리어 ‘사파하트’로 히브리어 어근 ‘사파흐’(פָּסַח)에서 왔으며 본문과 14:56에 나온다. 이 어근의 의미는 ‘부가하다, 첨부하다, 결합시키다, 어울리게 하다’ 등을 가리킨다.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σημασίας*, ‘(질병의) 확정적 발현’으로 번역한다. 불가타역은 13:2에서 이 단어를 *pustula* ‘고름 찬 부분, 사마귀’로 번역하지만, 14:56에서는 *erumpentium papulorum* ‘흔한 발진’으로 번역했다. 우리말의 경우 개역개정과 새번역 모두 ‘뿔루지’로 번역되어 있다. 영어 번역에서 이 단어는 ‘an eruption’(RSV, NRSV), ‘a rash’(NIV), ‘a scab’(NKJV), ‘pustule’(NEB) 등으로 나온다. NEB는 불가타역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어 원래의 어근의 의미인 ‘부가하다, 첨부하다, 결합시키다’와 관련시켜 해석한다면, 이 단어의 의미는 ‘피부에 딱지가 덧붙여진 상태’이다. 그러나 ‘딱지’가 있는 상태는 치료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딱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부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발진’ 혹은 ‘뿔루지’ 혹은 ‘고름’ 등 피부질환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¹³⁾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세 번째 증상은 ‘바헤레트’로 이 단어의 어근은 히브리어 ‘바하르’(בָּהַר)로 ‘빛나다, 찬란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레위기 13-14장에서 10번 나온다(13:2, 4, 19, 22, 23, 24, 25, 26, 28; 14:56). 개역개정은 이 단어를 ‘색점’으로 새번역은 ‘얼룩’으로 번역했다. 영어에는 ‘a bright spot’(NKJV, NIV), ‘a spot’(NRSV), ‘a shiny spot’(Jerusalem Bible), ‘inflammation’(NEB)로 번역되어 있다. NEB는 이 단어를 ‘염증’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염증’과 4절에서 설명한 ‘흰색’과의 관계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레빈은 이 단어를 ‘백반’(vitiligo)을 가리키는 병명으로 설명한다.¹⁴⁾ 이 단어의 어근과 한글 및 영어 번역을 참고로 한다면 약간 밝은 색을 띤 피부질환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얼룩’이라는 새번역¹⁵⁾보다는 ‘색점’이라는 개역개정의 의미가 히브리어의 어근에 비추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색점’이라는 단어

13) 레빈은 이 단어를 ‘피부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증상으로 구체적인 병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뿔루지’ 같은 증상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 Levine, *Leviticus*, JPS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76.

14) B. Levin, *Leviticus*, 76.

15) ‘얼룩’이라는 새번역은 영어의 번역 *discoloration*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의미는 ‘얼룩’보다는 ‘변색’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환부는 색이 변하는 것이지 얼룩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시 4절의 ‘희다’라는 개념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붉은 색을 띤 염증’이 원래의 의미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 또한 매우 불확실하다.

위의 3가지 증상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확인된다면, 이것은 ‘네가 짜라아트’(צָרַעַת, נָנֵעַ)로 불린다. ‘네가’의 어근인 ‘나가’(נָנַע)라는 단어는 ‘치다, 건드리다, 손을 대다’를 의미하며, 명사형인 ‘네가’는 ‘재앙, 화’를 의미한다. ‘네가’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용어이며, 짜라아트는 피부병과 관련된 제한적인 용어이다.¹⁶⁾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누구라도 짜라아트에 걸린 자를 데리고 아론이나 제사장 가운데 하나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2b절). 그러면 제사장은 추가로 두 가지를 더 살펴본다. ‘환부의 털이 흰색으로 변했는가’(13:3, 10, 20, 25)와 ‘환부가 피부보다 더 깊이 들어갔는지’(13:3, 25, 30)의 여부이다(3절).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드러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포한다. ‘부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제의에 참여할 수 없다. 1차적으로 그를 7일간 격리시킨다(13:4). 7일 후 재진찰을 한 뒤,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제사장은 다시 7일간 그를 다시 격리시킨다(13:5). 그 후에 다시 진찰한 뒤에 환부가 옅어지고 퍼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지 ‘피부병’ 혹은 ‘뽀루지’(מִסְפָּחָה)에 불과하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선포한 뒤에 그 병이 다시 피부에 퍼지면 ‘부정하다’고 선포한다(7-8절).

2.1.2. 만성적인 짜라아트(레 13:9 – 17)

이 단락은 증상이 짜라아트로 확증되었을 때 제사장이 행해야 할 제의적인 내용을 다룬다. 확증되었을 때의 증상은 10절에 나와 있다. 첫째, 피부가 희게 부풀어 오른다(שָׁאֵת-לִבְנָה בָּעוֹר). 둘째, 털이 흰색이 된다(הָיָא הַפֶּחַח שְׁעָר לָבָן). 셋째, 부풀어 오른 지점에 생살이 생겼다(שָׁאֵת חַי בְּשָׂרָה). 첫째 증상은 앞의 4절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4절은 ‘염증이 난 부위’(בְּהָרָת)가 희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10절은 2절에서 설명한 증상인 ‘부풀어 오른 부위’(שָׁאֵת)가 희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고 있다. 둘째, ‘털이 희게 되었다’는 표현은 3절에서 나온 증상이다. 셋째, ‘부풀어 오른 지점에 생살이 빠르게 생겼다’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해석은 난해하며 다양하다. 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ὑγιούς της σαρκός ‘건강한 피부’로 번역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이 생살을 ‘부정하다’고 선포한다. 따라서 칠십인역의 번역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윌킨슨은 이 표현을 ‘피부 궤양’(ulceration)으로 설명한다. 만일

16) 존 하틀리, 『레위기』, 427-428.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과 관련이 없는 피부의 생살은 부정하지 않고 보았다.¹⁷⁾ 혈스는 이 피부병의 상태를 ‘피부 건선’으로 인한 가려움으로 긁어서 출혈에 이르게 된 증상이라고 주장한다.¹⁸⁾ 그러나 히브리어로 ‘바사르 하이’(בֶּצֶר חַי)를 글자대로 번역하면 ‘생살’이 된다. 윌킨스는 피부 종양의 뿌리를 덮은 곳에 난 새로운 피부조직이라고 주장한다.¹⁹⁾ 이 ‘생살’은 제사장에 의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근거로 기능한다(14, 15, 16절).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 지점에 종양이 발생할 때는 ‘생살’이 부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증상이 필요 없다(15절).

12-13 및 16-17절은 생살의 발생이나 질병으로 인해 온 몸이 흰색으로 변한다면, 그는 제사장에 의해 정한 자로 선포된다. 온몸에 번지게 된 흰색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 현상을 하틀리는 ‘백선’(vitiligo)일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본다. 백선현상의 경우 보기에는 흉할지라도 발진, 염증, 고름 등이 전혀 없고 전염성도 없기 때문에 정하다고 선포되었다는 것이다.²⁰⁾ 드라이버는 이 현상에 대해 ‘표피탈락’(desquamation)으로 파악한다. 이 질병은 피부의 껍질이 벗겨나가 새로운 하얀 피부가 생기는 증상이라는 것이다.²¹⁾ 레빈은 이 현상에 대해 질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피부의 색이 흰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생살에 자라난 새로운 피부일 것이기 때문에 생살이나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²²⁾ 따라서 몸의 피부가 흰색으로 뒤덮인 상태를 ‘정하다’라고 심판한 것인데, 이 현상을 ‘백선’이나 ‘표피탈락’이라는 특정한 질병을 상징한다기보다는 레빈이 주장하는 대로 치료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1.3. 종기가 나은 후 나타나는 짜라아트(레 13:18-23)

이 단락은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후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다룬다. 종기가 발생했다가 나은 자리에 ‘하얗게 부은 현상’(שֵׂאת לִבְנָה)이나 ‘회고 불그스름한 색점’(בְּהֶרֶת לִבְנָה אֲדָמָה)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18-19절). ‘하얗게 부은 현상’은 2절의 ‘부은 현상’과 4절의 ‘피부가 희게 된 현상’이 합해진 증상이다. ‘회고 불그스름한 색점’(개역개

17) John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162-163.

18) E. V. Hulst, “The Nature of Biblical ‘Leprosy’ a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l Terms in Modern Translations”, *PEQ* 107 (1975), 98.

19) John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162.

20) 존 하틀리, 『레위기』, 430.

21) G. R. Driver, *Hasting's Dictionary of the Bible* (Edinburgh: T. & T. Clark, 1963), 570.

22) B. Levine, *Leviticus*, 78.

정)이라는 현상은 2절의 ‘색점’이라는 단어에 ‘희고 불그스름한’(개역개정)이라는 표현을 덧붙여 증상을 표현했다. 이 단어는 23, 43, 49절에서도 나온다. 이 때 제사장은 그 증상이 ‘피부보다 얇고 털이 희면’ 부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짜라아트의 재앙이기 때문이다(20절). 그러나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먼저 7일간 격리한다(21절). 그 후에 증상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짜라아트이므로 ‘부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22절). 그러나 그 색점이 미미하고 퍼지지 않았으면 단순한 종기의 딱지(צִרְבֶּת הַשָּׁחִי)일 뿐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23절).

2.1.4. 불에 데인 곳에 난 짜라아트(레 13:24 – 28)

이 단락은 화상(מִכּוֹת־אֵ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부병 질환을 다룬다. 화상이 일어난 부분에 ‘불그스름하게 희거나 단순히 희게 된다면’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24절). 제사장은 ‘털이 희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화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짜라아트이므로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25절). 그러나 환부에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없으면 7일간 격리시켜야 한다(26절). 그 다음 7일 후에 다시 진찰해 증상이 피부에 퍼졌으면 짜라아트이므로 ‘부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27절). 그러나 증상이 전과 유사하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단순히 ‘화상으로 부은 것’(שָׂאת הַמִּכּוֹה)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28절).

2.1.5. 수염이나 머리털 속의 짜라아트(레 13:29 – 37)

이 단락은 ‘네테크’(נִתֵּק)라고 불리는 피부질환을 다룬다. 이 병은 남녀 모두의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다. 그 증상은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생긴다. 이 질환은 ‘네테크’라고 불리는 짜라아트이다(30절). ‘네테크’의 병명에 대해서도 매우 난해하며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이 단어의 불확실한 의미는 다양한 번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영어 성경에서는 ‘an itch’(NRSV, NIV ‘옴’), ‘scurf’(NEB ‘버짐’), ‘a scale’(NAS ‘머리비듬’), ‘a dry scall’(KJV ‘마른버짐’), ‘a scaly’(NKJV ‘비듬’)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개역개정에는 ‘옴’으로 새번역은 ‘백선’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나타크’(נָתַק)로 ‘찢어내다,’ ‘뜯어내다,’ ‘떨어져 나가다’를 의미한다. 즉 ‘뭔가가 벗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

23) 이 표현에 대한 증상은 ‘오그라든 딱지’ 혹은 ‘피부의 외피에 무균성 농포가 모여 있는 농포성 건선(pustular psoriasis)’일 수도 있다. 존 하틀리, 『레위기』, 431.

여 가장 보편적으로 ‘옴’이라고 생각해왔다. ‘옴’이 걸리면 가려워서 계속 긁으면서 딱지가 벗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의 어근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해석으로 인한 유추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NEB와 KJV는 ‘버짐’으로 번역했고, NAS와 NKJV는 머리의 피부에서 생기는 ‘비듬’으로 번역했다. 새번역의 ‘백선’은 ‘쇠버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네테크’라는 질환은 ‘비듬’이나 ‘쇠버짐’ 혹은 ‘마른버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²⁴⁾

제사장은 ‘네테크’의 증상을 관찰한 결과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그 환자를 7일간 격리시킨다. 7일 후에 증상이 퍼지지 아니하고 환부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않으면, 모발은 밀려 환부는 밀지 않도록 한 뒤, 7일간 더 격리시킨다. 7일 후에 증상이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포한다. 그러면 환자는 그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된다(31-34절). 정결하게 된 후에라도 증상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린 털을 찾을 필요도 없이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선포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증상이 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므로, 제사장은 ‘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35-36절).

2.1.6. 피부에 나타난 흰 색점(레 13:38-39)

이 단락은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불그스레한 증상’(בְּהָרָת, *beherat*) 혹은 ‘희고 불그스레한 증상’(בְּהָרָת לְבָנָה, *beherat lebane*)을 다룬다. ‘불그스레한 증상’은 2절에서 ‘짜라아트’의 증상으로 나오며, ‘희고 불그스레한 현상’은 18절에서 짜라아트의 증상으로 나온다. 제사장은 그 증상을 관찰한 뒤 불그스레한 현상의 빛깔이 약해지고, 흰색 증상도 피부에 해가 없다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단순발진’(פֶּרַח, *perach*)이므로 ‘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

2.1.7. 대머리와 짜라아트(레 13:40-44)

이 단락은 대머리 현상 및 대머리에 나타난 짜라아트 증상을 다룬다. 40-41절에서 대머리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므로 ‘정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레한 증상’(לֵבָן אֶרְמָמִים, *leban ermmim*)이 나타난다면 대머리에 나타난 짜라아트 재앙이다. 피부에 나타난 ‘희고 불

24) 하지만 해리슨은 ‘마른버짐’ 외에도 ‘톤수란스 백선균’(tinea tonsurans) 혹은 ‘황선’(tinea favosus)과 같은 원형 버짐의 감형유형인 윤선(ringworm)일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미생물은 피부에 침입해 누런색의 모공 주변의 피부 껍질들을 생기도록 하기 때문이다. 존 하틀리, 『레위기』, 432.

그스레한 증상’은 38절에도 나온다. 그러나 42절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피부에 나타난 ‘짜라아트’와 동일하므로 ‘부정하다’고 선포해야 한다(43-44). 이 단락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 이후에 제사장이 취해야 할 행동은 앞에서 다룬 7일간의 격리와 재 진찰 후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과정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레위기 13-14장에 서술된 짜라아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레위기 13:1-44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질환을 묘사하며 짜라아트라고 부르고 있다. ‘피부에 무엇이 부풀어 오르거나, 뿔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나타나는 증상’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 증상’(2-3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희어지고 생살이 생기는 증상’(10절), ‘종기가 난 부위에 흰점이나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는 증상’(18절), ‘불에 덴 곳에 난 불그스름하면서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는 증상’(24절), ‘머리나 수염의 환부에 난 피부보다 우묵하고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나타나는 증상, 즉 백선’(30절), ‘피부에 난 색점 혹은 흰 색점’(38절), ‘대머리 부분에 난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42절)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묘사한다. 13:47-59에는 의복이나 가죽에 난 곰팡이, 14:33-53은 집에 난 곰팡이를 짜라아트로 규정한다. 짜라아트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갖가지의 증상들을 오늘날의 정확한 병명으로 확인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증상들에 대한 다양한 의학적인 병명들이 제시되지만 정확하게 일치된 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짜라아트는 레위기 13:1-44, 47-59; 14:33-53에 묘사된 다양한 피부병뿐만 아니라 의복이나 집에 핀 곰팡이에 대한 총칭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특징은 이 단락에 나타난 짜라아트는 구체적인 피부병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다양한 피부병에 대한 제의적인 절차를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한다는 점이다.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다루게 될 제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사장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정하다’와 ‘부정하다’이다. 13장은 주로 피부와 관련된 다양한 질병을 다루고 있지만, 그 목적은 ‘정하다’와 ‘부정하다’의 구별을 위함이다. 13-14장에는 ‘정하다’라는 단어가 39회,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30회 나온다. 궁극적으로 ‘부정하다’는 선포를 받게 된다면 질병에 걸린 사람은 늘 부정하며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레 13:46). 즉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레위기 13-14장은 제의적 관심과 목적을 위해 서술된 것이지, 정확한 병명의 확인을 위해 서술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병명을 찾으려는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확인하

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대 인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의 증상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의적인 관점에서 왜 짜라아트를 부정하다고 선포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회 인류학적 접근 방법으로 더글라스가 주장한 바 있다. 더글라스는 제사장들이 사회를 인식하는 틀을 신체에도 적용해 ‘정하다’와 ‘부정하다’로 분별한 방식 때문에 짜라아트를 몸이 유지해야 할 경계 밖의 현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²⁵⁾ 둘째, 밀그롬은 구약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짜라아트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연결되어 있으므로(민 12:12; 욥 18:13),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사장이 부정하다는 선포를 했다고 주장한다.²⁶⁾ 더글라스의 접근 방식은 크게 제사장의 세계관에서 짜라아트를 다루고 있지만,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 나타난 짜라아트의 위험성과 치명적인 부분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2.2. 신약성경의 레프라 혹은 레프로스

신약성경에서는 레프라(λέπρα) 혹은 레프로스(λεπρός)라는 두 단어가 나오며, ‘나병환자’와 ‘나병’으로 각각 번역되었다. 이 단어들은 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불치병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나온다(마 8:2-4; 11:5; 막 1:40-44; 눅 5:12-16; 17:11-19). 아울러 구약성경을 언급하는 과정(마 11:5; 눅 17:14)이나 구약성경에 제시된 정결제의를 행하는 장면(막 1:44; 눅 17:14)에서도 나온다. 마태복음 26:6 및 마가복음 14:3에 나병환자 시몬이 나온다. 그러나 그의 증상은 언급되지 않는다. 그는 격리되어 있지도 않았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병명이 무엇인지를 추측할 만한 증상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매우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피부병임을 알 수 있다.²⁷⁾ 복음서 외에는 이 단어가 안 나온다. 그러므로 레프라 및 레프로스는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치의 피부병이 반드시 오늘날의 한센병이 되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더 기적적인 것으로 비춰지고, 오늘날의 한센병이 아니라면

25) M. Douglas, *Purity and Danger* (London: Routledge, 1960), 114-128.

26) J. Milgrom, *Leviticus*, AB 3 (New York: Doubleday, 1991), 818.

27) 올브라이트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참고로 해 레프로스를 한센병, 건선, 백반을 포함하는 피부병을 암시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 근거는 매우 약하다. W. F. Albright, *Matthew*, AB 26, Garden City: Doubleday, 1971), 91. 루츠는 마태복음 8:2에 나오는 레프로스는 다양한 피부병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의 레프로스는 레위기 13-14장의 짜라아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Ulrich Luz, *Matthew 8-20* (Minneapolis: Fortress, 1989), 5, n.8.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행위에 흠이 가는 것도 아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한센병에 걸린 자를 치료하는 자로 나온 것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한 자라는 신학적 의미를 지닌다.²⁸⁾

신약성경의 레프라 혹은 레프로스는 주전 250년경 알렉산드리아에서 칠십인역이 구약성경의 짜라아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단어이다. 그리스어에서 레프라 혹은 레프로스는 ‘부풀어 오른,’ ‘표면이 평평하지 않은’ 등의 의미를 지닌 어근에서 파생한 것이다.²⁹⁾ 칠십인역을 번역할 때, 이 단어는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레프라라는 용어는 성경 밖의 그리스어에서 다양한 종류의 피부의 상태를 가리키는 총칭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460-377 B.C.)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질병의 색깔을 ‘흰색’ 혹은 ‘희미한 흰색’ 혹은 ‘검은’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질병의 정확한 병명은 불확실하다. 이 질병은 다양한 종류의 피부질환을 가리키고 있어서 복수형인 αἱ λευκαί로 나온다.³⁰⁾ 오늘날 한센병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는 엘레판티아시스(ἐλεφαντίασις)였다.³¹⁾ 이 질병은 피부가 깊은 곳에까지 거칠어져 코끼리 피부처럼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³²⁾ 오늘날 이 단어는 한센병과 관계없는 필라리아 질병(사상충증)을 의미한다.

3.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와 ‘한센병’의 증상 비교

28) Ulrich Luz, *Matthew 8-20*, 5, n.8.

29) W. Michaelis, “λέπρα, λεπρός”, in *TDNT IV* (1967), 235. 또한 이 단어의 어원을 그리스어 λεπω “겉질을 벗기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John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A Problem of Semantics and Translations”,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1 (1978), 158.

30)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A Problem of Semantics and Translations”, 159.

31) 폴리니우스는 오늘날의 한센병인 엘레판티아시스는 폼페이우스(주전 106-48)가 주전 62년 폰투스의 왕 미트리데이트(Mithridates)와의 전투 후 돌아올 때까지 로마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병이라고 언급한다. Jos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Bible Translator* 31 (1980), 209.

32) 주후 약 30년경, 1세기 로마 시대에 의사이자 백과사전 집필자였던 셀수스(Celsus)는 *De Medicina*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는 오늘날의 나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 사람들이 엘레판티아시스라고 부르는 질병은 아직 라틴 의학계에서는 잘 교육되지 않았다.” 라틴 의학계에서는 ‘반크로프트 사상충증’(Bancroftian filariasis)을 ‘엘레판티아시스 아라뭇’(elephantiasis arabum, ‘아랍인들의 코끼리 증상’)으로 불렀고, 오늘날 진짜 나병을 ‘엘레판티아시스 그라에코룸’(elephantiasis Graecorum, ‘그리스인들의 코끼리 증상’)으로 불렀다. John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A Problem of Semantics and Translations”, 159.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와 신약성경의 레프라 및 레프로스의 정확한 병명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수없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했다. 구약성경의 짜라아트는 매우 모호해 증상 자체를 제대로 밝힐 수 없다. 묘사된 증상의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예도 없기 때문에, 어근의 의미와 문맥에 따라 유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다양한 주장만 제기될 뿐 일치된 견해에 이르지 못한다.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제시된 병명은 옴(scabies), 백선(ringworm), 건선(psoriasis), 장미색 잔 비늘증(pityriasis rosea), 습진(eczema), 지루 피부염(seborrheic dermatitis), 황선(favus) 등이다. 물론 오늘날의 한센병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³³⁾ 그 근거는 대부분 교리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이다. ‘짜라아트’가 한센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저주라는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약성경의 ‘레프라’가 한센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구원사역의 중요성에 흠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센병은 무서운 질병이다. 이 질병에 걸리면 수족이 없어지며, 눈의 각막이 망가지며, 감염된 부위의 형체가 어그러진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전염성도 있다. 1873년, 노르웨이 출신의 의사인 한센은 처음으로 한센병의 원인이 되는 *mycobacterium leprae*라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그후 현대적 개념의 한센병 치료는 1940년경에 시작되었다.

한센병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나종나병과 결핵균에 의한 결핵나병이 있다. 나종나병의 잠복기는 결핵나병의 잠복기의 두 배 정도로 길고 나병균이 코 점막에 침범하면 딱지가 생기며 코막힘, 출혈 등을 일으키고, 피부에 침범하면 전신에 양쪽 대칭적으로 발진이 넓게 나타난다. 또 눈에 침범하면 홍채염이나 각막염을 일으킨다. 결핵나병의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경계가 뚜렷한 피부염이 신체에 비대칭적으로 퍼져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난 피부 부위는 무감각 또는 과다 감각 상태가 되는데 특히 말초신경으로의 나병균 침범이 심한 특징을 보인다. 피부에 나타나는 변화를 확인하고 말초신경이 침범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과다 감각, 감각 소실, 마비, 근육 위축 여부의 검진, 양측 말초 신경의 비대나 압통 여부의 촉진 등을 통해 진단한다.³⁴⁾

위와 같은 한센병의 특징에 근거에 레위기 13:1-44에 묘사된 ‘짜라아트’의 특징과 비교해보면 짜라아트가 한센병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3) 의학적으로 한센병과 ‘짜라아트’ 사이의 차이점이 있지만, 유사성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Short A. Rendle, *The Bible and Modern Medicine* (London: Paternoster Press, 1953), 77.

34) <http://en.wikipedia.org/wiki/Leprosy> (2015년 1월 15일).

첫째 단락인 13:1-8에서, 13:2의 ‘색점’(개역개정)은 피부의 환부가 ‘밝은 빛을 띠는’ 증상이다. 실제의 한센병에서 환부의 일부가 탈색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13:3의 ‘환부의 털이 희게 되는 증상’은 한센병에서는 안 나타난다. ‘환부가 주변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되는 증상’ 역시 한센병에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다. 한센병의 경우 환부가 두꺼워진다. 그러므로 결핵나병의 경우 가장자리가 두꺼워지므로 눈에 보기에 그럴 수는 있다.³⁵⁾ 13:5-7에 따르면 14일간 격리 후에 짜라아트의 증상이 사라질 수도 있고 더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센병의 경우 격리 후에 자연적으로 회복될 여지는 전혀 없다. 이것은 한센병과 ‘짜라아트’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단락인 13:9-17은 ‘만성적인 짜라아트, 즉 피부가 흰색으로 부풀어 오르고, 털이 희게 되고 생살이 생기는 증상’을 이야기한다(10-11절). 피부가 흰색으로 변하는 짜라아트는 일반적으로 건선, 즉 마른버짐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센병과는 관계가 없다.

셋째 단락인 13:18-23절은 종기가 난 곳이 ‘불그스름하고 흰색 혹은 순수한 흰색’으로 발전되는 증상을 이야기한다. 이 증상과 한센병과의 관련성은 명확하지 않다. 더군다나 ‘피부보다 얇은 증상’의 정체마저도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³⁶⁾

넷째 단락인 24-28절은 불에 덴 곳에 난 짜라아트의 발전과정을 다룬다. 그 증상은 ‘불그스름하게 희거나 단순히 희게 되는 것’과 ‘털이 희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 것이다. 이 증상과 한센병과의 불일치는 이미 위에서 지적된 바 있다. 털이 희게 되는 현상과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한 증상은 한센병과는 관계가 없다. 불에 덴 곳에 그러한 현상은 결코 수반되지 않는다.³⁷⁾

다섯째 단락인 29-37절은 남녀 모두의 머리카락 수염에 발생하는 ‘네테크’라는 질환인데, ‘환부에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생기는 증상’이다. 이 증상에 대한 병명은 ‘비듬’이나 ‘쇠버짐’ 혹은 ‘마른버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한센병과는 관계가 없다.

여섯째 단락인 38-39절은 피부에 나타난 ‘불그스레한 증상’ 혹은 ‘희고 불그스레한 증상’만 가지고는 한센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시킬 수 없다. 일곱째 단락인 40-44절은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나타난 ‘희고 불그스레한 증상’을 묘사한다. 두발이 한센병으로 변하는 현상은 매우 드물다. 머리에

35) K. P. C. A. Gramberg, “‘Leprosy’ and the Bible”, 11.

36) Ibid.

37) Ibid.

한센병이 발생했을 경우 색깔은 붉은 색이나 갈색을 띠며, 머리카락이 빠진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지는 않는다.³⁸⁾ 따라서 이 증상도 한센병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레위기 13:47-59 및 14:33-56에 짜라아트는 의복이나 집에서도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센병은 집이나 의복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레위기 13-14장 이외에는 짜라아트의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구약 성경의 세 곳에서 짜라아트에 대해 ‘눈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출 4:6; 민 12:10; 왕하 5:27). 새번역은 “눈처럼 하얗게”라고 번역한다. 히브리어에는 ‘하얗게’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눈같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질병의 색깔을 표시하기보다는 상처부위의 피부껍질이 눈 같이 날린다는 의미다. 민수기 12:12에서 아론은 보다 구체적으로 미리암에 대해 간구한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개역개정). 이 구절은 과장법이지만, 짜라아트의 특징인 피부껍질이 벗겨지는 증상이나 얇은 껍질 모양으로 떨어져나가는 증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태에서 죽어서 나오는 태아는 처음 며칠간 붉은 색을 띠지만, 며칠 후에는 갈색과 회색이 혼합된 기이한 색상을 띤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 밖으로 떨어져 나온다.³⁹⁾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짜라아트에도 한센병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한센병의 주요 증상과 구약성경에 나타난 짜라아트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구약성경의 짜라아트를 한센병과 연결시킬 수 있는 임상적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부의 발진 정도는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곧바로 한센병의 증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한 증상을 한센병의 초기증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13:9-17은 만성적인 짜라아트를 다룬다. 거기에도 한센병의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짜라아트에는 한센병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전무하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레프라 및 레프로스의 경우 증상에 대해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한센병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신약성경 시대에 한센병을 가리키는 단어는 엘레판티아시스였으므로 신약성경에는 한센병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38) K. P. C. A. Gramberg, “‘Leprosy’ and the Bible”, 12.

39) David P. Wright, Richard N. Jones, “Leprosy”, *ABD* 4 (1992), 278.

4.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의 번역과 한센병

구약성경의 짜라아트가 칠십인역으로 번역될 당시에는 피부발진을 유발하는 다양한 질병을 가리키는 레프라로 번역되었다. 칠십인역을 번역할 당시 이 단어는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처럼 다양한 피부병을 포괄하는 의미였다. 그 당시 이 단어는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신약시대에 한센병을 가리키는 단어는 ‘엘레판티아시스’였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병명을 가리키는 엘레판티아시스가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용어인 레프라와 레프로스를 사용했다. 의사였던 누가도 레프라와 레프로스를 사용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마음속에 오늘날의 한센병을 마음에 두고 기록했다면 당시의 한센병을 가리키는 용어인 엘레판티아시스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쓴 레프라 및 레프로스는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처럼 불쾌한 피부병을 가리키는 총칭으로 사용된 것이지 오늘날의 한센병을 가리킨 것은 아니었다.

주후 5세기 제롬(342-420)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리스어를 따라 라틴어 *lepra*로 번역했다. 이 무렵 레프라가 짜라아트와 한센병을 포함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데이비스는 약 4세기경 그리스어에서 레프라와 엘레판티아시스로 구분했던 전통이 하나의 단어로 통합되어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왜냐하면 두 용어 모두 당시의 의료계에서 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짧은 단어인 ‘레프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본다.⁴⁰⁾ 그러나 실상은 훨씬 더 복잡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19세기 노르웨이 의사인 한센이 정확하게 나균으로 인해 한센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히기 이전까지 일반 피부병과 잠복기를 가진 한센병 사이의 증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어를 둘러싼 혼란은 중세 시대에도 계속 이어진다. 맥아더는 레프라와 레프로스가 일반적인 피부병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많은 예를 발견한다.⁴¹⁾ 아랍의 의사 요하니스 크리소르하스(Yohannis Crysorrhas, 777-857)는 그리

40) Margaret Lloyd Davies, “Levitical Leprosy: Uncleaness and the Psyche”, *The Expository Times* 99(1988), 137. 오리바시우스(324-403)는 그 당시에 두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됨으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랍 사람들을 따라서 ‘레프로스’와 ‘엘레판티아시스’를 혼동한다. 그들은 참으로 레프로스를 엘레판티아시스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레프라’가 한센병과 다양한 피부질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

41) W. MacArthur, “Medieval ‘Leprosy’ in the British Isles”, *Leprosy Review* 24 (1953), 8-19. John Wilkinson, “Leprosy and Leviticus: A Problem of Semantics and Translation”, 160에서 재인용. 맥아더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의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로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어에서 한센병을 지칭하던 엘레판티아시스를 아랍어의 주잠(juzam)으로 번역한다. 그는 이 용어를 코란에서 가져왔다. 코란에서의 ‘주잠’은 히브리어에서의 짜라아트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크리스소르하스는 주잠을 엘레판티아시스와 연결시켰다.⁴²⁾ 그 후 십자군 전쟁 시기(A. D. 1000-1200)에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의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레프로스가 많이 확대되었고 격리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 및 로마의 자료들을 아랍어 번역으로부터 재생시키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원래의 그리스 및 라틴 텍스트들은 후에 발견되었다. 이때 레프로스와 한센병 사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용어는 없었다. 그리하여 의사들은 한센병에 대해 레프로스 혹은 레프라 혹은 엘레판티아시스를 혼동해 사용했다. 이러한 혼란은 1905년까지 계속되었다.⁴³⁾ 종교 개혁기를 거쳐 이루어진 영어 번역에서 짜라아트 및 레프로스는 한센병을 지칭하는 표준적인 단어가 되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성경번역에서 짜라아트와 레프라 및 레프로스는 한센병을 지칭하는 단어로 번역되고 이해되어 왔다.

5.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의 한센병 포함 여부

일부의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짜라아트가 다양한 피부병의 증상을 묘사하지만, 한센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현재의 관습에서 성경의 본문에 투사해 해석하는 교회 전통을 지키고자 한다. 그들은 짜라아트를 한센병의 발병 초기 증상으로 묘사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본문의 증거로 보아 가능하지 않다. 만성적인 짜라아트의 경우에도 한센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증상도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거는 역사적 및 고고학적 증거이다.

한센병은 주전 600년경 인도와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⁴⁾ 인도가 한센병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다. 일부의 자료는 고대 이집트에서 한센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⁴⁵⁾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언제 들어왔는지는 매우 큰 논란거리이

42) Jos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9.

43) 1905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 한센인 학회에서 혼란스런 용어들은 정리가 되었다. Jos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9.

44) 존 하틀리, 『레위기』, 425.

45) 플리니우스 2세(주후 23-79)는 한센병이 이집트의 남쪽에 위치한 누비아를 거쳐 로마에 왔

다. 지금까지의 문헌적 증거에 의하면 주전 300-250년경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센병이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스의 의사였던 오리바시우스(Oribasius, A. D. 324-403)는 그의 책 *Medicinalia Collecta*에서 오늘날의 한센병의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트라얀 황제의 의사였던 에베소의 루푸스(Rufus of Ephesus, A.D. 98-117)의 글을 인용한 것이었으며, 루푸스는 다시 알렉산드리아의 의사였던 에라시스트라투스(Erasistratus, 약 주전 300)의 제자인 스트라본(Strabon)의 글을 인용한 것이었다.⁴⁶⁾ 그러므로 기록상 한센병은 주전 300년 이후에 발견된다. 그러나 한센병이 정확하게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게 된 때는 알 수 없다. 가장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는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24년 인도의 북부 지역을 점령한 뒤 귀환할 때라는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된 의학 설명서인 수스루타(Susrutha)에 의하면, 한센병은 쿠스타(kustha)라는 병명으로 북부 인도에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은 후 제국이 분열되고 그의 부하들의 일부가 아시아계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의 데카폴리스 지역에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들 중의 일부가 한센병을 팔레스타인에 퍼뜨렸다는 것이다.⁴⁷⁾ 데카폴리스는 오늘날의 벤산 지역인 스키토폴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요단 동편 지역에 위치해 있다.⁴⁸⁾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한센병이 들어왔는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뼈를 주로 다루는 고고학에 의하면, 한센병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오게 된 때는 매우 후대라고 주장한다. 크리스텐센은 이집트에서 BC 6000-AD 600년 시대에 걸쳐 나온 1844개의 유골의 두개골을 검사했는데, 단지 2개만 한센병으로 판명되었다. 둘 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누비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라기스에서 나온 약 600개의 유골을 조사했지만, 그 가운데 한센병으로 확인된 예는 하나도 없었다.⁴⁹⁾ 한센병은 몸의 뼈의 형태도 변형시키기 때문에 뼈를 통해 한센병으로 인한 사망여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다고 기록하지만 그 근거는 없다. Jos Andersen,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208.

46) Margaret Lloyd Davies, "Levitical Leprosy: Uncleaness and the Psyche", *The Expository Times* 99 (1988), 139, n. 2. 스트라본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항이 거의 없다. 스트라본은 학생으로서 새로운 질병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서 그 증상을 자세하게 묘사했을 것이다.

47) 스트라본이 그 증상을 묘사했다는 것은 한센병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와 새로운 질병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음을 나타낸다. 당시에 한센병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질병이 들어온 후 약 50년 뒤가 된다. 따라서 한센병이 들어온 때는 주전 300년 이후 약 270년경이 된다.

48) M. Davies, "Levitical Leprosy", 136-137.

49) V. Moller Christensen, *The History of Syphilis and Leprosy: An Osteo-archaeological Approach*, Abbotemp 1 (1969). M. L. Davies, "Levitical Leprosy", 137; 존 하틀리, 『레위기』, 425에서 재인용.

까지 연구된 역사적 및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주전 331년 이전에는 한센병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아울러 구약성경에 묘사된 짜라아트의 특징을 오늘날의 한센병과 비교할 때 한센병을 짜라아트에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짜라아트의 특징에는 한센병을 판단하는데 결정적 요인인 감각 마비 증상, 손이나 발, 눈의 돌출, 얼굴뼈의 괴사 및 이그러짐 등의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짜라아트는 다양한 피부병의 증상을 다루며 다양한 병명들이 제시되지만 한센병과는 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6. 짜라아트 및 레프라 및 레프로스의 한글 번역을 위한 제안

구약성경의 짜라아트는 특정한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며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레위기 13-14장에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 및 사회적 개념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와 추방을 위한 절차과정에 나온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형벌로 나오며,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신약성경의 레프라 및 레프로스 역시 구체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구약성경의 짜라아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광범위한 피부병에 대한 총칭을 의미한다. 다만 당시에 그것은 불치병이었다. 예수님은 레프라 및 레프로스에 걸린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했다. 그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자로 해석하고 묘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짜라아트나 레프라 및 레프로스는 오늘날의 한센병과는 관계가 없다.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말 번역의 경우 개역성경(1938, 1956)과 공동번역(1977)은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를 모두 ‘문둥병’으로 번역했다. 표준새번역(1993)은 레위기 13-14장의 본문에서는 ‘악성 피부병’ 혹은 ‘악성 곰팡이’로 번역했지만 그 밖의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나병’으로 번역했다(15회). 신약성경에서도 ‘나병’으로 번역했다.⁵⁰⁾ 새번역(2001)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병’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구약성경에 14회 나온다. 신약성경도 여전히 ‘나병’으로 되

50) 마태복음 8:2의 난외주에 “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을 말함”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밝혔던 8:2의 레프로스는 나병을 포함하지 않는다.

어 있다. 개역개정(1998)은 모두 ‘나병’으로 번역했다.⁵¹⁾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발간한 성경(2005)도 새번역과 유사하게, 레위기 13-14장을 비롯한 일부에서만 ‘악성 피부병’으로 되어 있고, 구약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성경은 ‘나병’으로 번역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의 주요 성경에는 아직 ‘나병’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영어 성경의 경우 주요 번역은 나병을 지칭하는 단어로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leprosy’(KJV), ‘a leprous disease’(RSV, NRSV)). NIV의 경우 an infectious skin disease로 번역했다. 그러나 ‘infectious’(전염되기 쉬운)이라는 형용사는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의 특징에 나타나지 않는다. NEB(New English Bible)는 이 단어를 ‘a malignant skin disease’(유해한, 악성의 피부병)으로 사용한다. 우리말 새번역도 이 번역을 따라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레위기 13-14장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짜라아트, 신약성경의 레프라를 설명할 때 ‘악성’이라는 형용사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

위에서 제시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피부병’이라는 용어는 이 병명의 다양한 증상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어이다. 그것만으로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레위기 13-14장에는 ‘부정한’이라는 특징이 드러나 있고,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 질병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료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 세 가지 특징을 동시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레위기 13-14장의 특징에 따르면 ‘부정한 피부병’이 되지만, 이 용어는 이 질병의 두렵고 치명적인 특징을 살리지 못한다. 따라서 필자는 ‘치명적(致命的)인 피부병’으로 제안한다. 이 표현과 가장 유사한 영어 번역은 TEV의 ‘a dreaded skin disease’이다. 이 표현은 이 질병의 두려움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번역이지만, 생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표현하지 못한다. ‘치명적’이라는 단어는 ‘생명을 위협하는’을 뜻한다.⁵²⁾ 제의적 특징에서의 ‘부정하다’라는 개념은 생명의 위협과 관련되어 있으며,⁵³⁾ 구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죽음에의 공포와 신약성경에서도 이 질병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치명적인 피부병’은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포함하므로, 가

51) 레위기 13:2의 난외주에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다.

52) “치명적”,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53) 밀그롬은 제의적 부정의 이유를 죽음에의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J. Milgrom, *Leviticus*, 818-826. 후의 랍비전승에 따르면 짜라아트에 걸린 사람을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묘사했다.

장 적합한 단어이다.

7. 맺는 말

오늘날 한센병은 저주받은 천형의 상징이거나 불치의 병도 아니며, 격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박테리아의 전염에 의한 질병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저주받은 천형으로 생각하고 설교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한센인들이 여전히 종교적인 낙인이 찍힌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이 논문은 오늘날의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나 ‘나병’은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오역의 경우에 해당됨을 보여주었다. 문둥병이나 나병을 지칭하는 구약의 짜라아트와 신약의 레프라, 레프로스는 오늘날의 문둥병이나 나병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혔다. 그것은 역사적 전승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와 오역의 결과였다. 한번 고착화된 오류의 수정은 매우 어렵다. 오역의 수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필자는 ‘치명적인 피부병’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주제어>(Keywords)

나병, 문둥병, 한센병, 짜라아트, 레프라, 레프로스, 레위기 13-14장.

Leprosy, *lepra*, *lepros*, Hansen Disease, *ṣāraʿat*, a Lethal Skin Disease, Leviticus 13-14.

(투고 일자: 2014년 2월 11일, 심사 일자: 2014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14년 3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공동철, 『전염병은 없다』, 서울: 이회, 2000.
- 김기령, 『성경에 나타난 병』,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신정하, “한센병 관리에서 교육홍보의 중요성”, 『대한나학회지』 39:2 (2006), 63-70.
-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Albright, W. F., and C. S. Mann, *Matthew*, AB 26, Garden City: Doubleday, 1971.
- Andersen, Johs. G., “Leprosy in Translations of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31:2 (1980), 207-212.
- Baden, Joel S., “The Origin and Interpretation of *šāra’at* in Leviticus 13-14”, *JBL* 130(2011), 643-662.
- Browne, S. G., “ ‘Leprosy’ in the New English Bible”, *Bible Translator* 22 (1971), 45-46.
- Cochrane, R. G., “Biblical Leprosy”, *The Bible Translator* 12 (1961), 202-203.
- Davies, Margaret Lloyd, “Levitical Leprosy: Uncleaness and the Psyche”, *The Expository Times* 99 (1988), 136-139.
- Davies, Margaret Lloyd, “Biblical Leprosy: a Comedy of Errors”,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82 (1989), 622-623.
- Derrett, J. Duncan, “No Stone upon Another Leprosy and the Temple”, *JSNT* 30 (1987), 3-20.
- Douglas, M., *Purity and Danger*, London: Routledge, 1960.
- Gramberg, K. P. C. A., “ ‘Leprosy’ and the Bible”, *BT* 11 (1960), 10-23.
- Hartley, John, 『레위기』, 김경열 역,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5.
- Hulse, E. V., “The Nature of Biblical ‘Leprosy’ and the Use of Alternative Medical Terms in Modern Translations”, *PEQ* 107 (1975), 87-105.
- Levine, B. A., *Leviticus*, JP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Luz, Ulrich, *Matthew 8-20*,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 Meier, Sam, “House Fungus: Mesopotamia and Israel (Lev 14:33-53)”, *RB* 96-2 (1989), 184-192.
- Michaelis, W., “λέπρα, λεπρός”, *TDNT* IV (1967), 233-234.
- Milgrom, J., *Leviticus*, Anchor Bible 3, New York: Doubleday, 1991.
- Olanisebe, Samson O., “Laws of *tzara’at* in Leviticus 13-14 and Medical Leprosy Compared”, *Jewish Bible Quarterly* 42 (2014), 121-127.
- Pilch, John J., “Biblical Leprosy and Body Symbolism”, *Biblical Theology Bulletin* 11 (1981), 108-113.
- Sawyer, John F., “A Note on the Etymology of *šāra’at*”, *VT* 26 (1976), 241-245.

Seidl, T., “צָרַעַת”, *TDOT* XII(2003), 468-475.

Swellengrebel, J. L., “ ‘Leprosy’ and the Bible: The Translation of ‘*Tsara’ath* and *Lepra*’”, *Bible Translator* 11 (1960), 69-81.

Wallington, D. H., “ ‘Leprosy’ and the Bible”, *The Bible Translator* 12 (1961), 75-79.

Wilkinson, John, “Leprosy and Leviticus: The Problem of Description and Identificat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0 (1977), 153-169.

Wilkinson, John, “Leprosy and Leviticus: A Problem of Semantics and Translat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31 (1978), 153-166.

Wright, David P., Richard N. Jones, “Leprosy”, *ABD* 4 (1992), 277-282.

Yoon-Jong Yoo, “The Role of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in Informing the Term ‘Hansen’s Disease,’” in *2010 World Forum on Hansen’s Disease*, 한빛 복지협회 편, 서울: 보림 S & P, 2011, 467-480.

<Abstract>

The Right Understanding and Translation of תַּרְעָתָה, λέπρα, λεπρός

Yoonjong Yoo

(Pyeongtaek University)

The words *šāra'at* in the Old Testament, *lepra* and *lepros* in the New Testament have been translated into 'leprosy' in most English versions as well as in Korean. This paper pursues three matter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šāra'at* of the Old Testament, *lepra* and *lepros* of the New Testament and Hansen's disease and argues that the *šāra'at* in the Old Testament, *lepra* and *lepros* in the New Testament has nothing to do with Hansen's disease.

First, this paper compares symptoms of *šāra'at* of the Old Testament, *lepra* and *lepros* of the New Testament with Hansen disease. The best text for comparing symptoms of *šāra'at* with those of Hansen's disease is the book of Leviticus chapters 13-14 where the priestly writer explains well how to deal with symptoms of *šāra'at*. It is not easy to find the symptoms of *šāra'at*, *lepra* and *lepros* in other texts of the Bible where horrible features of the disease are mentioned. It is concluded that *šāra'at*, *lepra* and *lepros* have no relationship with modern Hansen's disease.

Second, It has been reviewed through ancient writings that Hansen disease did not arrive at Israel during the Old Testament times, since it has been assumed that the disease entered into the land of Palestine after Alexander's conquest of India in 324 B.C. from India. Archaeological evidences such as human skull also proves that Hansen's disease is shown after the 5th century in Palestine. In addition,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term for Hansen disease during the New Testament times was not *lepra* or *lepros*, but *elephantiasis*. The *lepra* or *lepros* refers to a term including a variety of skin diseases. The term referring to modern Hansen's disease was *elephantiasis*.

Third, it is noteworthy that there had been some confusion between the terms *lepra* and *elephantiasis* after the fourth century A.D until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us the term called leprosy has been used for today's Hansen's disease. Most of modern biblical studies show that the usage of a term 'leprosy' to the translation of *šāra'at*, *lepra* and *lepros* is not proper, but it is not easy to correct wrong translation in the Bible.

The author demonstrates that translation of *ṣāraʿat* of the Old Testament, *lepra* and *lepros* of the New Testament into true leprosy, i. e. Hansen's disease is a serious error. Accordingly it should be corrected to a proper term. The author proposes a term 'a lethal skin disease,' because *ṣāraʿat*, *lepra* and *lepros* are used in the context of fear to death in the Bible.